

스즈짱 드롭킥R 2화 -한국어



"크윽...!"

목에 사슬이 걸려 코너까지 끌려간 스즈를 로즈의 부하들이 둘러싼다.

"오랏!"



퍽! 퍼억!

"붓...!! 으겏...!!"

로즈 역시 품에 숨기고 있던 채찍을 꺼내 스즈의 몸을 난도질하기 시작한다.

'찰싹! 짜악! 찰싹!'

"음...!! 이런...! 것쯤은...!"

'독무에 직격으로 직격 당하고도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니...? 하지만 예상범위 안이야...'

【오오오오오!!】



채찍질을 중단한 로즈가 스즈의 입술에 입술을 포개어 독을 직접 주입한다.

"음...! 으으음...!"

스즈가 입을 닫아막고 저항하나, 로즈가 스즈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검지와 중지 사이에 클리를 끼우고 동시에 혀를 밀어넣어 강제로 스즈의 닫힌 입을 열어젖힌다.

"응그으음...!! 응흐으으음...!!"

'음...! 이대로는...!'

양발을 들어올린 스즈가 힘껏 로즈의 가슴을 차고 쇠사슬을 걸고 있던 좀비의 뒷덜미를 잡아 로즈를 향해 집어던진다. 구속을 뿌리친 스즈가 매트에 주저앉아 마른기침을 토해낼때마다 붉은 가스가 스즈의 입술 바깥으로 새어나온다. 매트에서 일어나려하지만 시야가 뒤틀리며 찾아온 어지럼증이 스즈를 강제로 무릎 꿇게 만든다.

"콜록...! 콜록...!"

'무언가의 독...? 아까보다 아랫배가 뜨거워...!'

독에 발이 묶인 스즈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로즈의 부하들이 난입해 전열의 좀비가 쇠사슬을 채찍처럼 휘두른다.

"이 년...!"

휘둘러진 쇠사슬을 낮은 자세로 피한 스즈가 래리어트로 반격해 뒤따라오는 좀비의 무리에 프론트 드롭킥을 꽂는다.

빠악!



"그에엣...!"

로즈의 부하들이 정리되면 링 위에 남는건 로즈와 스즈 둘 뿐.

"아직도 단념 못하는거야? 효소독이 장기에 장악하기까지 끝이야. 이미 늦었다고!"

"역시 그건...! 그렇게 되지 전에 당신을 쓰러트려보이겠어요!"

로즈의 생각보다 스즈의 저항은 거셌고 반칙기에 의존해 그다지 프로레슬링을 연마하지 않은 로즈가 스즈를 상대로 정면승부가 될리 없었다. 파워밤으로 매트에 내려쫓힌 로즈가 등을 타고 흐르는 고통에 비명을 토해낸다.

과앙!

"그하앗!"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코너로 올라가 로즈를 어깨에 거꾸로 짊어지고 피셔맨 수플렉스를 꽂으려는 순간 스즈의 시야가 세갈래로 갈라 중심을 잃고 매트에 낙하한다.



'웃...! 시야가...그훗!!'

로즈가 매트에 쓰러져 독에 괴로워하는 스즈의 옆구리를 발로 가격한다.

"시덥잖은 저항이나 해대긴... 하지만 이제 타임오버야! 너한테 내 비장의 기술을 시험해주지!"

"으아아앗...!!"



스즈를 코너까지 밀어붙인 로즈가 그녀의 배를 힘껏 움켜쥐는다.

"한번 문 사냥감은 놓치지 않는게 좀비라서말야. 악력 300kg까지 단련한 아이언클로야. 마음껏 맛 보라구!"

즈깃!



내장을 쥐어짜이는 고통이 스즈의 입을 통해 주입된 가스를 역류시켜 기도를 메우며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끄웃...! 으그웃...!"

"헬즈플레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맘에 안들어. 걸치레나 신경 쓰는 애매한 기술이나 쓰면서 프로레슬링 혼? 그런건 과대포장이야! 이기기 위한 진짜 살상력을 가진 기술 앞에선 전부가 무의미! 이 힘으로 너희 도태된 열등종들은 척결해주겠어!"



"그하아앗...!! 게헤엣...!! 으아아아앗...!!"